

# 제10대 방진회장에 김상준 (주)풍산 사장 선임

## 2003년 방진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2003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0일 국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0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및 기타사항을 승인하였다.

이어 78개 회원사중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감사 24명을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들간의 호선에 의해 김상준 (주)풍산 사장이 제10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으로 선임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신임 김상준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국내외 안보환경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외엔 없다”고 진단하고,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전 회원사가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새로 선임된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방산 관련 우수논문으로 최동철 국방부 사무관의 「한국의 방위산업 경영 합리화 방안」이 최우수작에, 양미호 육군 소령의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조현철 해군 소령의 「잠수함 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가 우수작에 선정되어 상패를 수여받았다.

#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

## 무기체계 획득절차 투명성, 공정성, 경제성 제고에 중점

**국방** 부는 무기체계 국외도입시 도출된 보완사항과 획득업무 수행간 발생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02년 10월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안)을 착수하여 수차례 걸친 실무 및 전문가 토의를 통해 각군·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정책회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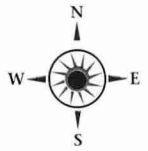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분야는 국외도입 무기체계 획득분야와 연구개발분야 그리고 획득관리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정하였다.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 전, 국외도입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업체로부터 제안서 접수 후, 평가방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기종결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국외도입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투명성·공정성·경제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안서 접수 전에 평가방법·기준을 제시하고 기종결정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 등 획득절차를 개선하였다.

연구개발분야는 연구개발단계별로 소요군·기관의 의견



반영 기회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핵심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소요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軍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소요를 합참이 종합·심의하여 국방부로 제기하도록 하였고, 학계에 국방관련 특화연구센터 설치·운영근거를 신설하였다.

획득관리분야는 진행중인 사업의 상시 확인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등 사업관

리기능을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금번 획득관리규정 개정으로 특히,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공정성·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제도 개선으로 핵심기술 소요창출을 활성화하고 사업착수 전, 사전조사·분석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참조 : 本誌 2003년 2월호 pp.16~25

## 국내 최초 전투기관제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 영공 감시능력 향상과 70억원 국방예산 절감 효과

**국방** 부는 국내 최초로 전투기 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공군 정찬영 중위 등 5명에게 '02년 국방부 창안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자 표 참조)

창안상 금상을 수상해 보국훈장을 받은 정 중위가 전투기관제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시작한 것은 지난 '00년 7월경으로 '92년 미국에서 도입, 전국의 레이더 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전투기관제 훈련 시뮬레이터가 제작 회사의 도산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수리용 부품마저 구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운용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장비개발 프로젝트가 정 중위가 근무하던 연구실에 부여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투기관제 훈련 시뮬레이터는 관제단계별 훈련을 위해 레이더 스크프 상에 모의항적을 만들어, 가상조종사가 이를 조종하고 일선 전투기 관제사들로 하여금 이 항적을 관제하도록 하는 장비로 훈련을 위해 실제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고도 실전과 같은 관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 동안 사용해 온 장비는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대당 약 4억 7천만원이며 충분량을 도입할 수 없어 일정량을 도입, 필수 작전부대에서만 정기적

으로 교대해가며 사용해 왔다. 더구나 기존의 장비들은 '92년 도입된 구형 장비여서 사용이 불편하고 각종 훈련상황을 부여하는 기능이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95년 美 제작사가 도산하며 후속 군수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간 훈련에 제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 중위가 새로 장비를 개발, 전 레이더 기지에 보급하게 됨으로써 관제사들이 필요시,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작 단가가 20만원에 불과해 수입장비 도입단가인 4억 7천여 만원에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약 70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순수 군내 기술로 자체 개발함에 따라 향후 추가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도 월등히 저렴하게 되었다.

#### 2002년도 창안상 수상자

채 등 급	포 상 훈 격	창 안 명	창 안 자
금 상	보 국 훈 장	방공관제 모의 훈련 장비 개발	정찬영 중위(공군군수사)
은 상	보 국 포 장	KF-16 항공기 기관3번 베어링 진동 방지 윤활유 공급 '기'자 튜브 패키징 장탈착 공구 제작	김동철 상사(공군20비)
동 상	대 통 령 표 창	SHIP LIFT 체인책 상부 고정 지지대 및 피스톤 실 장치 공구 제작	정종대 군무원(해군2함대)
동 상	대 통 령 표 창	F-16 LANDING GEAR 시스템 BUSHINGS REPAIR KIT 제작	주대현 원사(공군19비)
동 상	대 통 령 표 창	4.2인치 구형 박격포 조준구 장착 브라켓 제작	강무형 군무원(육군군수사)